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사피엔스들

1주차	일시	5월 1일 10 : 30 장소명 연구관 528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솔 2353112	x
		강다은 2492011	O
		지해윤 2492003	O
		문지영 2511058	O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1 p. ~ 118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교수님, 지해윤, 강다은, 문지영] 생각해 볼 주제: 토론 주제 1 (지해윤) : 만약 사피엔스 뿐만 아니라 다른 네안데르탈인 등이 함께 살아남았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인종 차별이 생겨났을 것 같다. 사피엔스만 있는 현재에도 차별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만약 네안데르탈인에 더해서 새로운 종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종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졌을 것 같다. 교수님: 사피엔스만 있는 사회에서도 지배종이 있다. 현재의 그 인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강다은: 권력가, 돈이 많은 사람, 백인 교수님: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실 똑같지만 백인이 결국에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토론 주제 2 (강다은) : 진실보다 허구를 믿는 것(전설, 신화, 신, 종교 등) 이 인류에게 이로운가?	

	지해윤: 처음에는 어떻게 신을 어떻게 믿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믿게 되는 순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보다 허구를 믿는 것이 인류에게 이로운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람들간의 동질감을 유도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강다은: 다같이 동질감을 위해서 믿는거는 더 안 좋은 인식으로 되니까 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이비를 예로 든다면 너무 단체로 믿을 때 더 안좋은 쪽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위로 혹은 힘을 얻기 위해서 믿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문지영: 혼자 잘못된 것을 믿어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인 지주의 면에서는 이롭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적으로 힘든일이 있거나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토론 주제 3 (문지영) : 큰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된 허구의 이야기(신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신화는 무엇이 있을까? 네안테르탈인보다 사피엔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믿으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떤 신화를 믿을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골랐다. 강다은: 단군신화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다. 교수님: 우리의 정체성으로서의 신화말고 개인적인 삶에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개인을 지배하는 상상의 질서는 무엇이 있을까? 지해윤: 살아가는 것, 더 나은 삶을 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강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문지영: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	---

2주차	일시	5월 15일 10 : 30 장소명 연구관 528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솔 2353112	O
		강다은 2492011	O
		지해운 2492003	O
		문지영 2511058	O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120 p. ~ 232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교수님, 문지영, 김솔, 지해운, 강다은] 토론 주제1 (지해운) : 농업혁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통해서 되게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다은: 농업혁명이 사람들을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놀랐다. 지금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과정을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문지영: 부정적으로 보기에 오늘날의 사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영향은 농업혁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솔: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수님: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었다. 지배층/피지배층 나눠지는게 저자에게는 굉장히 큰 부분이어서 농업혁명을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또, 남녀는 과연 평등한가? 남녀 뿐만 아니라 제 3의 성이라던지, 동성애자 등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잘 누리고 있는가?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남성들은 왜 그러한 점을 외면해온 것인가? 기득권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해운: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온다. 강다은: 사회에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지영: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김솔: 사회적 학습 때문이 아닐까? 토론 주제2 (강다은): 만약 농업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인류 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토론 주제3 (문지영): 오늘날 사피엔스의 식생활, 사회 구조, 노동 방식 등을 볼 때, 우리는 수렵채집인과 농경 사회 사람들 중 누구의 삶에 더 가까운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토론 주제 4 (김솔): 수렵채집인의 삶이 행복할까 현대인의 삶이 행복할까?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지해윤: 너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행복을 느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기준이 있을 것이다. 강다은: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즐겁게 놀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들만의 삶이 또 따로 있을 것이라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을 살고 있기에 나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	--	---

3주차	일시	5월 29일 10 : 30 장소명 연구관 528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솔 2353112	O
		강다은 2492011	O
		지해윤 2492003	O
		문지영 2511058	O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234 p. ~ 347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교수님, 문지영, 김솔, 강다은, 지해윤]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생각해 볼 주제: 토론 주제1 (김솔) : 시간이 지나면 전쟁, 차별, 갈등이 없어지고 전 인류가 하나로 통합이 될까? 그렇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이로운가? 지해윤: 기원전부터 전쟁과 차별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문지영: 없어지진 않고 나아질 순 있을 것이다. 강다은: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지만 나아지거나 새로운 유형의 차별이 생길것이다. 교수님: 인류가 과연 통합이 될까 당장 통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해윤: 전쟁의 위험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갈라진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쉽게 하나가 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주제 2 (지해윤) : 식민지배 시기에 식민제국이 남긴 문화유산은 보존해야 하는가 제거해야하는가 식민제국이 지은 문화 유산이 과연 식민지의 유산일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김솔 강다은 : 보존을 해야한다. 전체적인 인류 역사에서 식민지 유산 또한 일부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 문지영: 역사적 증거로 학문적으로 탐구할 때 쓰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보존해야 한다.	

	교수님: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 해방 이후에 파괴 동을 보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육을 할것인가 인 것 같다. 토론 주제 3 (강다은): 화폐는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를 하나로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화폐를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화폐에 통제당하고 있는가? 김솔: 빈부에 따라서 통제를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다. 문지영: 화폐에 통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물교환을 통해서 물건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써 무언가 주도권이 생겼기 때문에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더더욱 통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해윤: 화폐에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화폐를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물교환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가치를 부여한건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수님: 돈의 값어치는 상상의 개념이다. 엄청난 발명품인 것 같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토론 주제 4 (문지영): 지금까지 인류는 화폐, 제국, 종교라는 상상의 질서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에는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믿고 따를 새로운 신념(상상의 질서)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김솔: 어떤 새로운 종교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교수님: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종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치 체제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
--	---

4주차	일시	6월 5일 10 : 30 장소명 연구관 528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솔 2353112	O
		강다은 2492011	O
		지해운 2492003	O
		문지영 2511058	O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350 p. ~ 586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교수님, 문지영, 김솔, 강다은, 지해운] 토론 주제 1 (지해운) : 과연 미래의 우리는 죽음을 정복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게 될까? 지해운: 사람의 생명이 정해진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지영 :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평범하게 살다 죽고 싶다. 김솔: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더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다. 한.. 200살 까지..? 강다은: 80살까지만 적당히 살고 싶다 토론 주제2 (김솔) : 인간이 생명을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 김솔: 윤리적인 제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하지 않을까 제제 뿐만 아니라 어떤 윤리 의식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지해운: 미래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강다은: 만약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면 규제를 미리 정해놓고 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님: 클론이라던지, 돼지 신장같은 것을 이식을 한다면 그것은 괜찮은가?	

	지해윤: 혹할 순 있겠지만 생명을 빼앗는 기분이 들 것 같다. 교수님: 인간이면 안 되고, 동물이면 되고, 또 돼지면 되고 개는 안되고 인간은 기원전 원시시대 때부터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다 토론 주제3 (문지영):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부와 권력을 강화시키고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된다면, 미래의 과학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부와 권력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기술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 문지영: 자본가가 원하는 대로 과학기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었다. 과학기술을 주제로한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결국 기술을 독점하고 이용하는 것은 권력층이다. 미래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생명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될 것 같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 같다. 김솔, 지해윤, 강다은: 정책적으로 규제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교수님: 역사가 평등했었던 적이 있었나? 농업혁명에서부터도 계급이 나뉘었는데 과연 우리가 평등했던 적이 있었나? 과학기술이 발전된다고 해서 달라질까? 지해윤: 지하철 시위를 예시로 들 수 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 않을까? 교수님: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김솔: 얼마나 안 들어주면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 어떤 리스크를 안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 또, 그런 일을 겪은 당시에는 조금 짜증이 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에 관심이 가게 될 것이다. 강다은: 그냥 있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시위가 맨날 지속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중 최선이지 않았을까. 인명피해는 없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었을 것이다.
--	--

	지해윤: 장애인 시위가 혜화에서 자주 일어난다. 한 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경찰에 더 공포감이 들었다. 사람 수도 많고 바리케이트도 쳐져 있었고, 위기상황이 아닌데 위기 상황으로 만드는 것 같다. 교수님 : 그럼 나는 불만이 없나 다른사람도 나의 불만을 받아들여 줄 수 있나?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차별, 장애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 대학사회 내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것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등 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단으로써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가 용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용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지향해야 한다. 토론 주제4 (강다은): 우리는 지식을 ‘알기 위해’ 추구하는가, 아니면 ‘쓸모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가? 즉 지식을 얻는 목적은 진리 추구를 위한 것인가? 유용성(힘)을 위한 것인가? > 강다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학생 때 배우는 것도 그렇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배운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 지해윤: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 같다. 다른 내 개인적 궁금증은 외부에서 다른 활동으로 얻어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나 인문학으로 알기 위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김솔: 사실 정말 알기위한 순수 궁금증으로 지식을 얻으려고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되거나, 수업과 연관이 있거나, 나의 역량을 키워주니까 활동을 하는 것 같다. 문지영: 쓸모있는 정보를 배우는 지식이 더 큰 것 같다. 교수님 : 사실 내가 지금 하고있는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걸 어디에쓰지 라는 생각을 하지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역량을 키워주고, 기반을 다져준다. 대학 졸업할 때 어떤 것을 하고싶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대학생활은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	---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김솔 2353112	우선 이렇게 두꺼운 책 한권을 완독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 일단 굉장히 뿌듯하다. 아는 척 좀 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이 활동 때문에 공강 아침마다 학교에 가는 것도 당시엔 무척 피곤했으나 독서클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뭔가 상쾌한 기분이었다. 다음 활동도 기대가 되고 그랬다. 다른 전공의 학우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그 다음으로 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이다.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내 세상 또한 확장된 기분이 들었다. 교수님께서 던져주시는 여러 질문들로 하여금 평소에 섭사리 말하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해보고, 또 남의 의견도 들어보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다른 시선을 공유하는 것이 특히 좋았다. 책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이번 활동이 정말정말 만족스럽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또 신청하고 싶다.
	2	강다은 2492011	'사피엔스'라는 책은 혼자 읽을 때는 방대한 정보와 철학적인 질문들 앞에서 종종 어렵게만 느껴져 끝까지 완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며 이야기를 확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금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단순히 책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현대 사회의 문제와 대학생으로서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들까지 함께 생각해보며 토론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다. 서로 다른 관점과 질문들이 오가는 속에서 내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선택과 허구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통찰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밀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밀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인간은 진실보다 허구를 믿는 것이 더 유리한가? 농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피엔스는 인류의 마지막 종일까? 우리는 과연 죽음을 정복하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까? 이처럼 각 파트를 읽으며 더 이야기나누고 싶어 선정한 토론 주제들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되짚고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기회로 다가왔다. 결국 '사피엔스'는 단순한 인류학 서적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 책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을 이번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3	지해운 2492003	인문학책 즉, 정보가 너무 많은 책을 읽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혼자서 읽을 때에는 끝까지 읽기가 어려웠다. 그랬기에 사피엔스 독서클럽이 열린다고 했을 때 꼭 신청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사피엔스는 생각보다 흥미로운 책이었다. 사람들의 근원에 대한 것만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피엔스의 시작부터 앞으로의 미래까지 그리며 현대사회를 잘 담아내고 있는 책이어서 더욱 읽어나가기 어렵지 않았다. 독서클럽 활동을 하면서 정해진 부분을 읽어나가는 것이 흥미로웠고 그 내용에서 각자 하나씩의 토론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관련된 토론을 주차별로 진행했다. 같은 내용을 읽고서도 각자 흥미롭게 다가온, 궁금했던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 신기했고 이것이 독서클럽의 재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해진 주제 외에도 그 자리에서 그 관련 주제에서 뻗어나간 질문을 던져보며 이야기를 나눈 것 또한 흥미로웠다.

			항상 당연하게만 생각해왔던 것이 어찌면 옳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의미있는 독서클럽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4	문지영 2511058	평소에는 책을 읽으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책을 읽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갑자기 생기는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서클럽에 참여하게 되었고, 함께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독서클럽 모임은 이런 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질문이나 궁금증을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런 대화를 통해 생각이 새로운 주제로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평소에는 떠올리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함께 읽은 사피엔스는 혼자였다면, 끝까지 읽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독서클럽 덕분에 꾸준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피엔스는 인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내용을 깊이 있게 던지는 책이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읽으며 더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다른 책으로 독서클럽을 계속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